



기독일보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음력 8월 7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1882호

“대한민국이 살 길은 北 인권 개선과 자유 통일”



“계셔서 든든하고 감사하다” 한변 8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축사한 나경원 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 여기 계셔서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변 8주년 기념식 및 회장 이취임식…‘북한인권상’ 시상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창립 8주년 기념식 및 북한인권상 시상회를 가졌다. 2013년 창립 후 지난 8년 간 한변을 이끌어 온 김태훈 변호사가 회장직을 이임하고, 이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가 새 회장에 취임했다.

한변의 회원 중 한 명이기도 한 이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한반도 전역에 자유와 인권이 충만한 통일 대한민국을 세우기로 결의한 그 때 그 마음 그대로, 어떤 외곡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변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훈 직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이 어려운 시절에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 나아가 북한 인권 개선과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해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개회사에서는 “8년 전인 2013년 9월 10일 창립된 한변은 북한 인권을 정면으로 내세웠고, 헌법에 따른 자유통일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 통일”이라며 “한변은 127차례 걸친 화요집회를 통

해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 등도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축사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 계셔서 든든하고 감사하다. 특히 김태훈 변호사님의 의지가 없었다면 한변이라는 단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한변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김태훈 변호사님께서 한변의 회장을 맡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왕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깜깜한 이 어둠에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한변의 모든 분들과 함께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날 제4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이 있었다. 한변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 통일을 위해 현신해 온 인물과 단체에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제1회는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2회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제3회는 사단법인 물망초가 수상했다. 올해는 북한개혁방송 김승철 대표와



한변의 새 회장인 이재현 변호사(왼쪽)가 직전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및 데일리NK 대표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탈북민이기도 한 김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대한민국에 온지 27년이 됐다. 이제는 자유와 권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어서 모르고 있다가도 외국에 나가 북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갖게 된 권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매번 깨달았다. 북한 인민들은 인간으로서의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 가지고 또 행사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북한 인민들이 단 하루라도 두려움과 공포 없이 평화롭고 평온한 자유로움을 누리고 살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북한 인민들도 평화로운 세계의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신 “차별금지법과 건가법 개정안 단호히 배척”



대한예수교장로회 종회 합동총신(종회장 최철호 목사·사진)이 국회에서 밟아온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총회는 이 성명에서 “이 법안들이 지향하는 바의 핵심은 단순하다. 그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 및 베타적인 법적 보호 조치”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이미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보호해온 바로, 새삼스럽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들 법안” 밟아온 자자들이 사용하는 ‘소수자’란 단어는 ‘동성애’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한 변명이다”라며 “물론 이들은 소수자의 개념 속에 성적지향 측면에서의 소수(少數) 외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소수자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법이 보호하는 대상들이며, 만일 미흡하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면 될 일이

은 심지어 뛰어신학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제시하나, 그것은 명백한 이단”이라며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역리(易理)’라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유기하신다고 하였다(롬 1:24-32)”고 했다.

총회는 “물론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아들의 동일한 후손들로 우리의 형제로 이웃이다. 우리는 이들의 혼란과 아픔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구원에 협력해야 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뜻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회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성화로 완성되는 것으로 동성 간의 성적결합 행위가 거룩하게 변화하는 성화(聖化)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했다.

총회는 “동성애와 동성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고이한 형태의 가정에 대하여 법제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순교자적 정신으로 단호히 배척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개정 사학법은 사악법… 독소조항 철폐돼야”

미래목회포럼 “文대통령, 국회에 재의 요구해 주길”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 이하 미목)이 “사학법은 사악법”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미목은 이 성명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사학법 개정안이 거센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로써 기존 교원임용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었던 것이,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는 곧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 사학에게는 종교의 자유마저 박탈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 이 법안이 사학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이처럼 강행을 하는 데에는,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행정남비이자 임법남발”이라며 “무엇보다 학교법인의 고우 인사권마저 박탈시키면서 시도 교육감에게 (필기시

험의) 전권을 넘겨주는 것은 오히려 교육 권력 집중화현상이 일어나 또 다른 임용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특히 우리 기독교 사학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로 돌아오게 됐다. 기독교적 전통으로 세워져 학교를 구성하는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하는데,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마저 잊을 운명에 처했다”고 했다. 미목은 “학교법인이 자유로운 인사권을 빼앗기면서 기독교에 반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비신앙인, 혹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임용이 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는 곧 전형한 기독교 사학을 해치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재들을 양육해 내는 데에도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혹자는 그동안 사학이 잘하지 못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할 수 있으나, 어떠한 사유가 되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법 개정이 우선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은 사학들의 기본권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각자의 자진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줄 때”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건전한 사학으로서 국가에 아비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들은 “반드시 위헌적 독소조항을 완전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한국교회도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사학들과 함께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기독교 학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전명한다”며 “나아가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적 독소조항이 철폐되지 않을 경우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낙선운동은 물론, 현법소원 등의 행동에 동참해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2021학년도 [순복음] 목사·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1. 신학부 3년 8학기(남, 여)

구 분	학 년	지원자격
주간반	1학년	1. 월,화,목,금(오전 10시~4시) 2. 고등학교졸업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성령세례 및 침례를 받은 자. 4. 소명이 확실한 자.
주말반	1학년	1. 매주 토요일 강의(10시~오후 6시) 2. 고등학교졸업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성령세례 및 침례를 받은 자. 4. 소명이 확실한 자.
편입생 (주간·주말)	2학년 (주간·주말)	1. 정규대학 졸업자 및 전문대학 졸업자. 2.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정규대학 4년 졸업자는 본교 3학년에 편입 가능함.
통신신학	1. 통신으로 6학기(2년) 이수 후 본과 신학부 2학년에 편입 할 수 있음. 2.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3. 목대원(D.Min)–박사학위(2년 5학기)

학위반	현직 목회자
특 정	1. 학점 이수제 과정으로 진행함 2. 교단인정 학위 수여 3. 목회자 연장 교육 4. 매주 목요일 강의(오전 10시 ~오후 5시)

4. 원서 교부 및 시행

- 원서교부: 현재 교부(수시모집)
- 원서접수기간: 현재
- 전형방법: 서류심사 후 면접
- 박사학위반 모집(0명)

5. 특징

1. 사명감은 있으나 기회를 놓쳐 신학을 못하신 분
2.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본 교단의 제반 과정을 거쳐서 목사안수를 받음
3. 각종 장학제도 있음
4. 일선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신학을 중심으로 교육시킴

● 교통편

지하철 2호선, 4호선 사당역 하차, 10번 출구



신학원장
강본심 목사

신대원장
김영대 목사

목대원장
김명식 목사

- 순복음 총회신학·신대원·목대원은 다음과 같은 교육이념으로 교육합니다.
- 영적 주체의식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지도자가 되게 교육한다.
 - 복음적으로 올바른 사상을 함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이 시대의 기독교적 지도자와 봉사자가 되게 교육한다.
 - 기독주의와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에 미혹된 이 사회와 교계에 오직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십자가의 정谛을 양성한다.
 - 영적 사회적 책임과 부르심을 입은 사명에 투철한 목회자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한다.
 - 실천신학을 중심으로 현장목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의 주역, 순복음 총회의 역군들로 교육한다.



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 총회신학원·신대원·목대원

| 07015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7길 44(사당동)
전화 : (02) 3472-0091 FAX : (02) 3472-0314